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주 소 희
<사회복지임상·부교수>
1010jshee@kbtus.ac.kr

I. 문제제기

최근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급증으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논의를 증가시키고 있다. 1990년 당시 전체결혼에서 국제결혼 이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2010년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전체 혼인 중 10.5%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한국인 남성과 중국, 필리핀, 태국, 몽골여성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간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상업적인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교류 없이 짧은 시간 내에 결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은 결혼당시 한국사회나 남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국과 동시에 남편과 주변환경을 불

1)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11, [온라인자료] <http://www.kosis.kr>, 2013년 1월 17일 접속.

때 자신의 기대와 현저한 차이로 충격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²⁾ 이러한 충격은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정체감 혼란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문화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 상실 및 다양한 생활스트레스의 누적은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불안이나 우울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된다.³⁾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도 정신건강의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결혼이주를 포함하여 이민과 정신장애 유병률간의 관계연구에서 보고된 바를 살펴보면, 이민자는 우울이 28.4%, 불안장애 37.1%, 신체화장애 29.4%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이민자의 자살률은 자국민의 자살률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의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⁵⁾ 더욱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결혼이주 후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을 유지할 때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결혼적응과 한국에서의 경제 및 가족생활 현황, 가족관계에서의 직면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다룬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적응상의 문제나 스트레스의 결과로 초래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 중에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는 위험집단이 어느 정도인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 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이주여성들이 결혼과 동시에 아내로서 주부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
- 2) 양진향 외 3인, “다문화가정이주여성의 가족적응경험,” 『한국간호과학회』, 42권 1호 (2012): 39.
 - 3)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7, no. 1 (1997): 13.
 - 4) 김현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0권 2호 (2011): 189.
 - 5) 노소영, 김은영,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4권 4호 (2012): 371.

때문에 그들이 정신건강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단순히 문화적 이동만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단선적인 측면으로 보기 보다는 다각적인 요인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말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단순히 적응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적응과정에서 유발된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 내적자원 및 외적인 사회적 지지자원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요인과 자원요인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검토

1.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선, 한국에 이주해온 결혼이주여성들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의 경우 1995-1999년에는 일본여성들이 많았고, 2000-2004년에는 중국조선족, 북미, 호주, 서유럽출신의 여성들이, 2005년 이후로는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한족, 몽골, 필리핀 순으로 나타나, 국적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24세 이하의 젊은 어린여성들이 결혼으로 한국 사회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는 대부분 1명이 가장 많고 자녀가 없는 비율도 높았다. 다문화 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빈곤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70%가 국적 미취득 상태였으며 대부분 고등학교

줄업이 많았고,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능력은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는 언어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부갈등, 자녀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족폭력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문제, 법적신분보장에 따른 거주나 차별의 두려움, 심리사회적 소외감과 정체성 혼란,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문제 등이다.⁶⁾ 이렇듯 결혼이주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문제와 부부갈등이나 결혼안정성 및 가족문제와 관련된 연구,⁷⁾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스트레스나 문화적응과 관련된 연구,⁸⁾ 이주여성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⁹⁾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결혼이주여성들뿐 아니라 이민자, 난민, 체류자 등과 같이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이슈 등으로 자국의 문화권에서 타 문화권으로 옮겨가 일정기간 머무르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적응을 요하게 된다. 즉, 이들은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게 되면서 본국에서 익숙했던 심리, 사회,

-
- 6) 이성희 외 2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특성,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권 3호 (2012): 170.
- 7) 박순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권 1호 (2011): 89-109; 김현숙,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2권 2호 (2010): 135-59; 서해정, 김형모,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학회지』, 36권 2호 (2009): 359-89; 송미영, 박정희, “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6권 (2008): 53-70.
- 8) 박주희, 정진경,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권4호 (2007): 395-432.
- 9) 조인주, 현안나,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권 1호 (2012): 177-206; 양옥경, 김연수,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집 (2007): 79-110; 김도희, 이경은,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권 2호 (2010): 5-25.

정치, 경제적인 적응을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¹⁰⁾ 사실상 문화의 변화는 단순한 지역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신념체계가 도전을 받고,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문화적응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Oberg(1960)는 타 문화권으로 이동하는 개인은 먼저 새로운 문화와 만나서 황홀, 감탄, 열정을 느끼는 시기인 밀월단계를 지나고, 다음으로 좌절, 불안, 분노, 부적절감 등을 느끼는 위기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의 위기를 해결하고 문화를 배워 나가는 회복단계를 거쳐야 마지막으로 적응단계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¹¹⁾ 물론 이러한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주장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타문화권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의 적응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불안, 우울, 좌절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위기단계를 거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적응상의 과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화적응의 개념 안에서 이주자에게 나타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¹²⁾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일련의 스트레스들과 심각한 갈등 및 문화충격을 의미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말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원 문화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국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적응을 요구하는 문화적 상황의 변화가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발생되고 임상적으로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정진경, 양계민,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권 1호 (2004): 107.

11) Ibid., 105.

12)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권 8호 (2010): 309.

미국거주 멕시코계 기혼여성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연구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정신건강의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여성 이민자의 우울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우울의 16%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¹³⁾ 아시아계 미국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우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¹⁴⁾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이입이 낮을수록 새로운 사회에 적응도가 떨어져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다. 즉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살충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증명되었다.¹⁵⁾ 이렇듯,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사회적수준에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별감이나 지각된 죄책감, 미움과 같은 요인들은 개인의 외적인 환경요인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주변사람의 지지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느끼면 해소될 수 있다.

한편,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문화적응과정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주한 사회가 다문화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인지, 동화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회인가에 따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동화주의사회로 이주한 사람보다 다문화주의로 이주한 사람들이 문화적응스

13) V. N. Salgado de Snyder,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11 (1987): 482.

14) A. C. Mue, and Suk-Young Kang,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among Asian Immigrant Elders," *Social Work*, vol. 51, no. 3 (2006): 243.

15)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 310.

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이주요인이 자발적인지 아니면 비자발적인지에 따라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발적 이주민의 경우가 비자발적인 이주민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 어떠한 문화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달라진다고 보고된다.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출신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고 주류문화를 적극적으로 접촉하려는 동화전략, 자신의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주류문화를 받아들여려는 통합전략, 자기문화를 고집하면서 주류문화의 접촉을 회피하는 분리전략, 차별이나 배제의 이유로 주류문화에 관계 맺기에 전혀 관심 없는 주변화 전략 등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르다는 것이다.¹⁷⁾ 이러한 네 가지 범주는 자신의 고유문화와 새로운 이주국가의 주류문화에 대한 태도와 적응패턴과도 관계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요인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결혼당시 연령도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민을 가는 경우 현지적응에 어려울 수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수준을 적게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전에 이입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할 수 있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입지의 문화적응을 스트레스로 경험하기보다는 기회와 도전으로 보는 인지적 경향 때문이라고 한다.¹⁸⁾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들의 제공정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의 마련과

16) 정기선, 한지은,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권 2호 (2009): 90.

17) Ibid., 90.

18) 정명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 스트레스발생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국제지역연구』, 15호 2권 (2011): 469.

적절한 이민정책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제기된다.

3.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의 목적은 결혼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본국에서의 생활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주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이주여성들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민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가 클수록 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적응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보고되는데, 미국 내의 캐리비안 이민자 1세대를 대상으로 기대와 결과의 지각된 일치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이주하기 전에 기대했던 수준과 일치한 경우 우울과는 부적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다시 말해 이주 전에 기대했던 이주 후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듯,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주민 자신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능력이 자신의 역량을 초과할 때 심각한 내, 외적인 갈등을 경험하며, 이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 낮은 자존감, 그로 인한 불안감이나 우울, 신체화 증상, 정체감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적응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등의 역기능적인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이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자체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보다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인 다양한 특성과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의 조합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바람직할 것이다.

19) 배경희, 서연숙,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권 4호 (2011): 187.

그런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자원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자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처럼 새롭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으로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간에 관계를 완충하는 유용한 변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박형원의 연구(20)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해외이주한인여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학력, 민족적 배경, 언어사용능력, 거주기간 그리고 과거 정신병력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²¹⁾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학력수준은 스트레스와 우울과 관련이 깊고, 자국의 언어와 이주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사소통도구로서 적응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서 이주국 언어의 유창성에 주목한다. 연구결과에 따라 이주국 언어의 유창성은 우울과 높은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²²⁾ 그러나 연구결과에 따라서는 반대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있다.²³⁾ 이러한 언어사용능력은 자녀들의 양육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나타난다. 자녀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적응에도 부정적

20)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 315.

21) 김오남,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권 3호 (2007): 53.

22) Ibid., 49.

23) 양옥경, 김연수,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102; 정기선, 한지은,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104.

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의 수준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가족해체의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우울증을 비롯하며 정신건강에 이주국의 언어사용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상반된 결과들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언어사용능력의 정도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이다.

자녀와 관련된 변인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보다 자녀가 있는 부부들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가 있다.²⁴⁾ 또한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자녀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인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국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5.3%가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인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일반인의 5%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²⁶⁾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결혼이주여성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과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들 중 월 200만원미만의 여성들의 우울이 월 200만원 이상의 여성의 우울보다 높게 나타났다.²⁷⁾ 한편 사회적지지 요인들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²⁸⁾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 지지를 제공받는 정도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에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변인과 자원변인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경제수준, 자녀수, 거주

24) 박정희, 유영주, “주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권 1호 (1999): 101.

25) Ibid.

26) 양옥경, 김연수,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84.

27) 배경희, 서연숙,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187.

28)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 315; 김순규, 이주재,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사회적지지가 한국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권 1호 (2010): 17.

기간을 사회적 자원변인은 한국어능력과 공식적 지지정도를 포함시켰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전라지역, 경북지역의 권역으로 나누어 15개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별 지원센터의 이용자 현황을 기초로 눈덩이 표집과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표집방법은 먼저 각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복지관의 목록을 작성한 후에 각 기관에 전화 혹은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순서를 밟았다. 이후 협조를 수락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연구의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1달간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전문번역가에 의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어 등 5개국으로 번안하였으며, 한국어판과 함께 조사에 사용되었다. 문화적 내용에 대한 문항내용의 적합 여부와 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다양한 국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항내용의 이해도와 연구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평가한 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결혼이주여성의 상황과 잘 맞지 않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렇게 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950부였으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863부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인구사회학적인 변인, 문화적응스트레스, 정신건강, 공식적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활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도희가 사용하여 타당성을 검증받은 SL-ASIA(Suinn-Iew Asian Self-Identify Acculturation Scale)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Suinn et al.(1992)가 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려고 개발한 21개 문항 중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김도희의 연구²⁹⁾에서 사용한 17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다. SL-ASIA 척도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신뢰도는 .82으로 나타났다.

2) 정신건강

조사대상자의 정신건강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GHQ-28(General Health Questionnaire-28)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신질환의 여부나 진단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신선인이 지역사회내 대인서비스 전문가가 정신질환의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³⁰⁾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변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77으로 나타났다.

3) 한국어 능력평가

조사대상자의 한국어 유창성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어의 듣기, 읽기, 쓰기의 3가지 영역에 대해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5점 척도로 보고하도록 고안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29) 김도희,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124.

30) 서울대학교실천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나눔의집, 2007), 187.

4) 공식적지지

공식적지지는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지의 정도와 공식적지지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경험정도를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후에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하의 내적신뢰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에서는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의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 분석 전의 사전검증으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그에 따른 확인을 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확인 및 다중 공선성 진단(collinearity diagnostics)을 통하여 고유근, 상태지수, 분산비율 등을 분석하였다.

IV.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20대 초 중반이 368명(4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6세-30세가 252명(29.2%), 31세-35세가 102명(11.8%), 36세-40세가 67명(7.8%), 41세 이상이 50명(5.8%), 20세 이하가 24명(2.8%)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509명(59.0%)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83명(21.3%), 필리핀이 58명(6.7%), 일본이 40명(4.6%), 기타가 73명(8.5%)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 290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282명(32.7%), 초졸

이 140명(16.2%), 전문대 및 대 중퇴가 77명(8.9%), 대졸 이상이 62명(7.2%), 무학이 12명(1.4%)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714명(82.7%), 자녀가 없는 경우가 149명(17.3%)으로 대부분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593명(68.3%)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 1> 인구사회학적특성(n=863)

	구 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세 이하	24	2.8
	21세~25세	368	42.6
	26세~30세	252	29.2
	31세~35세	102	11.8
	36세~40세	67	7.8
	41세 이상	50	5.8
출신국가	필리핀	58	6.7
	베트남	509	59.0
	중국	183	21.3
	일본	40	4.6
	기타	73	8.5
학력	무학	12	1.4
	초졸	140	16.2
	중졸	290	33.6
	고졸	282	32.7
	전문대 및 대중퇴	77	8.9
	대졸 이상	62	7.2
자녀	있다	714	82.7
	없다	149	17.3
경제수준 (월수입)	100만원 미만	593	68.3
	100만원 이상-199만원 미만	215	24.9
	200만원 이상-299만원 미만	40	4.6
	300만원 이상-399만원 미만	11	1.3
	400만원 이상	4	0.5
거주기간	1년 미만	142	16.5
	1년 이상-3년 미만	417	48.3
	3년 이상-5년 미만	142	16.5
	5년 이상	162	18.8

그 다음으로는 100-199만원 미만이 215명(24.9%), 200만원 이상이 55명(5.9%)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년에서 3년 미만이 417명(48.3%), 5년 이상이 162명(18.8), 1년 미만과 3년에서 5년 미만이 각각 142명(16.5%)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정신건강간의 차이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자녀유무, 학력, 경제수준, 한국어능력, 사회적지원정도, 문화적응스트레스수준과 정신건강과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녀유무에 따른 우울과 불안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우울과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우울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 자녀유무와 정신건강 차이분석(n=863)

구분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우울	자녀무	149	13.18	3.72	.901*
	자녀유	714	12.92	3.20	
불안	자녀무	149	11.81	3.15	.709
	자녀유	714	11.62	2.83	

*p< .05 **p< .01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력과 경제수준, 한국어능력 그리고 문화적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한국어 능력정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정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영역인 우울과 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3>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분산분석(n=863)

종속변수	독립변수	평균제곱	자유도	F	P
우울	연령	7.76	4	.712	.584
	학력	2.63	6	.241	.963
	경제수준	5.41	5	.496	.780
	한국어능력	97.24	4	9.27	.000 ***
	거주기간	27.36	3	2.52	.056
	문화적응 스트레스	81.62	2	7.50	.001 ***
불안	연령	11.57	4	1.38	.237
	학력	9.828	6	1.17	.316
	경제수준	14.44	5	1.73	.124
	한국어능력	63.95	4	7.89	.000 ***
	거주기간	11.08	3	1.32	.264
	문화적응 스트레스	42.98	2	5.11	.006 **

* P< .05 ** P< .01 *** P<.001

3.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1)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하는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회귀분석에서 개별변수들을 측정하는데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와 다중 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요인(VIF)을 검토하였다. 공차한계는 모든 변수에서 .70보다 높았으며 분산팽창요인도 모든 변수에서 .2이하로 나타났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과 공차한계, 분산팽창요인 검토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한 회귀분석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상대적

으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모든 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연령, 학력, 거주기간, 자녀유무, 경제적 상태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에 영향력을 갖는지 검증하였다. dummy 변수 처리한 변인은 자녀유무(0= 없음, 1= 있음)이었다. 분석결과 연령과 경제수준을 제외한 학력, 자녀유무, 거주기간이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불안이 감소하였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불안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한국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적응력이 향상되어 불안이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불안에 대한 1단계 설명력은 6.3%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 분석에서는 자원의 변인으로 한국어능력과 공식적 지지변인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불안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사용능력정도가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좋을수록 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단계에서 사용된 모델의 불안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1.2%로 나타났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3단계 모델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변인이 추가되었다.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1.8%로 나타나 2단계 모형의 11.2%보다 0.6% 증가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이 결혼이주여성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관리에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최종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에 가장 강력한 요인은 한국어능력,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학력으로 검증되었다.

<표 3>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독립변수	불안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연령	.015	.046	-.014	-.030	.019	.042
학력	-.228	-.091*	-.185	-.074	-.243	-.097*
경제수준	-.066	-.016	-.118	-.029	-.152	-.037
거주기간	-.012	-.136**	-.009	-.107**	-.005	-.059
자녀유무	-.399	-.112*	-.221	-.062	-.194	-.054
한국어능력			-.882	-.202***	-.683	-.168**
공식적지지			-.304	-.057	-.348	-.065
문화적응 스트레스					.040	.122*
R2	.063		.112		.118	
adjusted R2	.044		.104		.110	
F	3.601*		15.362 ***		14.279 ***	

* P< .05 ** P< .01 *** P<.001

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모든 요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연령, 학력, 거주기간, 자녀유무, 경제적 상태 등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이상의 변수를 투입한 결과, 모든 변량에 대한 3.7%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은 학력만이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모형에 포함된 요인 외에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공식적 지지변인을 투입하였다.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0%로 나타났다. 1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학력은 2단계 모델에서는 불안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추가된 한국어능력과 공식적 지지요인은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능력이 좋을수록 공식적지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모델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변인이 추가되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가장 강력한 요인은 한국어능력, 문화적응스트레스, 공식적지지 그리고 학력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좋을수록 우울감이 감소되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안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공식적지지의 정도가 우울에서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공식적 지지를 받는 경우 우울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독립변수	우울					
	모델1		모델2		모델3	
	B	β	B	β	B	β
연령	.022	.040	-.001	-.002	.007	.013
학력	-.282	-.094*	-.234	-.078	-.319	-.106*
경제수준	-.148	-.030	-.193	-.039	-.239	-.048
거주기간	-.084	-.020	-.001	-.015	.002	.022
자녀유무	-.399	-.112	-.072	-.017	.104	.024
한국어능력			-.963	-.197***	-.772	-.158**
공식적지지			-.651	-.101**	-.713	-.111**
문화적응스트레스					.057	.146**
R2	.037		.060		.074	
adjusted R2	.021		.047		.058	
F	2.131*		10.686 ***		8.998 **	

* P< .05 ** P< .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인구사회학적특징과 자원요인으로 한국어능력, 공식적지지서비스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 중심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중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우울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학력과 경제수준, 한국어능력, 그리고 문화적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정신건강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한국어능력 정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 영역인 우울과 불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학력, 한국어능력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불안의 문제는 낮아지고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불안의 문제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공식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능력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클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을 위해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

소시킬 수 있는 개입과 다양한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신국을 떠나 한국사회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상의 어려움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전략과 개입이 요구된다. 사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이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나 다양한 인종에 대한 수용에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종차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살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방인 취급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외면할 수 없는 한 단면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자원과 같은 공식적 지지자원의 제공이 필요하다. 공식적 지지정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공식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지역사회내의 공식적 지지의 정보제공과 좀 더 다차원적인 사회적지지망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학력과 한국어능력은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학력수준은 스트레스와 우울과 관련이 깊고, 자국의 언어와 이주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김오남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³¹⁾.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어 사용능력의 정도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언어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만족스런 삶과 가족 및 외부와의 교류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은 한국문화 적응에 필수적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중의 하나가 자녀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라는 보고에서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능력은 자녀들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신건강의 수준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가족해체의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지원책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참여정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개입도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투입된 변수들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고 연구결과의 함의를 유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공식적 지지자원경험 정도는 실질적인 사회적 지지나 사회적자원의 망의 정도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접근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표집방법에 있어 무작위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여 조사 결과를 한국에 있는 결혼이주여성 전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31) 김요남,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연구,” 65.

참고자료

1. 단행본

서울대학교실천사회복지연구원.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나눔의집, 2007.

2. 정기간행물

김도희, 이경은. “결혼이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권 2호 (2010): 5-25.

김오남.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권 3호 (2007): 43-73.

김순규, 이주재.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사회적지지가 한국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권 1호 (2010): 5-20.

김현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0권 2호 (2011): 188-98.

김현숙.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62권 2호 (2010): 135-59.

노소영, 김은영.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4권 4호 (2012): 370-79.

박순희.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권 1호 (2011): 89-109.

박정희, 유영주. “주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권 1호 (1999): 91-119.

박주희, 정진경.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권 4호 (2007): 395-432.

박형원. “해외이주 한인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콘텐츠학

- 회논문지」, 10권 8호 (2010): 309-16.
- 배경희, 서연숙.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로유무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권 4호 (2011): 183-202.
- 서해정, 김형모.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학회지』, 36권 2호 (2009): 359-89.
- 이성희, 김현실. “결혼이주여성의 개인배경특성, 원가족건강성, 정신건강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권 3호 (2012): 167-89.
- 양옥경, 김연수.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집 (2007): 79-110.
- 송미영, 박정희. “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6권 (2008): 53-70.
- 양진향 외 3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가족적응경험.” 『한국간호과학회』, 42권 1호 (2012): 36-47.
- 정기선, 한지은.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권 2호 (2009): 87-114.
- 정명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적응 스트레스 발생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국제지역연구』, 15권 2호 (2011): 451-81.
- 정진경, 양계민.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권 1호 (2004): 101-36.
- 조인주, 현안나.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권 1호 (2012): 177-206.
-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vol. 46, no. 1 (1997): 5-68.
- Mue, A.C. and Suk-Young Kang.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among Asian Immigrant Elders.” *Social Work*, vol. 51, no. 3 (2006): 243-55.
- Salgado de Snyder, V. N.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 (1987): 475-88.

3. 미간행자료

김도희. “결혼이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4. 기타자료

통계청. “인구 가구 총조사.” 2011. [온라인자료] <http://www.kosis.kr>, 2013년 1월 17일 접속.